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채용 여건 안정적... 11월 14만6천개 늘어
- Bloomberg: 미국에서 일자리 찾기에 시간이 더 걸려

[미국 금융]

- FinanceYahoo: 월가, "내년에 미국 경제 견조하다" 베팅
- Bloomberg: 한국 계엄령 사태, 아시아에 계속 여파 줄 듯

[트럼프 행정부]

- WSJ: 트럼프의 중국과 세계에 대한 관세 도표

[미국 생활]

- WSJ: 시카고, 쿼텀 컴퓨팅 실리콘 밸리 계획한다
- WSJ: 미국 학생 글로벌 수학 성적 뒤처져... 타국보다 팬데믹 여파 커

[에너지]

- WSJ: 유가 상승, OPEC+ 회의에 주목한다
- Bloomberg: 새 트럼프 정부 임기 중반까지 유가 60달러 이하로 하락 예상

[주택]

- FinanceYahoo: 미 모기지율, 10월 중순 이후 최저치

[미중 경제]

- WSJ: OECD "2025년 세계 경제 성장 가속... 관세 여파 우려"
- WSJ: 중국 서비스 활동 지표, 낙관적인 성장 신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래가 밝다
- WSJ: GM, 중국 사업 부진으로 50억불 손실
- CNNBusiness: 코카콜라, 플라스틱 줄이겠다 약속 못 지킨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mpanies Added 146,000 Jobs in November, ADP Data Show

미 채용 여건 안정적... 11월 14만6천개 늘어

- 고용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연한 상황이다. 11월 미 기업들 고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ADP 관련 자료에 따르면 11월 민간 기업의 고용 숫자는 14만6천개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는 15만개였다. 지난 10월도 조정치로 18만4천개를 기록하면서 고용이 증가했었다.

- 업종별로 고용 숫자가 달랐다. 교육, 보건, 건축 분야는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제조업은 1년 중 고용이 가장 낮았다. 레저 및 금융 서비스 업종도 약세를 보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It's Taking Longer to Find a New Job in the US
미국에서 일자리 찾기에 시간이 더 걸려

- 노동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미국인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다.
- 일자리를 찾는 약 7백만명 중에 40% 이상이 적어도 15주 동안은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이 힘든 상황은 2차 대전 이래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까지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상황이다.
- 이는 팬데믹이 회복된 2022년과 2023년 동안에 일자리 붐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어제 화요일 발표된 연방 노동 통계청에 따르면 10월에 전체 고용 숫자 중에 신규 고용 숫자의 비율은 3.3%로 떨어졌다. 이는 실업률이 7%가 넘었던 지난 2013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FinanceYahoo: Wall Street is betting on a strong US economy in 2025:
Morning Brief
월가, "내년에 미국 경제 견조하다" 베팅

- 내년도 미 GDP성장이 2%에서 3% 사이로 예상되면서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고 Bank of America와 RBC Capital Markets 전략가들은 전망했다.
- 이 같이 미국 경제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략가들은 금융주와 임의 소비재, 소재 업종에 비용 확대를 추천하고 있다.
- 강한 경제와 낮은 실업률, 그리고 강한 GDP 성장률로 S&P 500은 내년 말에 6천6백 이상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전 기록을 봤을 때 GDP가 2.1%에서 3% 사이를 보일 경우 주식 수익률은 평균 11% 정도를 기록했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Gamble Gone Bad Upends Trader Perception of Korea and Beyond

한국 계엄령 사태, 아시아에 계속 여파 줄 듯

- 한국의 계엄령 사태가 짧았지만 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주는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가뜰이나 트럼프의 고관세 시행 가능성으로 아시아 자산이 위축된 상황에서 한국의 계엄령 사태로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이번 사태로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한 우려 상승과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원화는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토론로의 RBC Capital Markets의 전략가 Luis Estrada는 “모든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올해 말 낮은 유동성 시즌이고,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관세 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뢰감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트럼프 행정부]

WSJ: Breaking Down Trump's Tariffs on China and the World, in Charts 트럼프의 중국과 세계에 대한 관세 도표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상황에서 미국 수입품 중 중국산의 점유율은 줄고 있으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상승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은 미국이 두 번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이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그리고 중국에 추가 10% 관세 적용이 시행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은 10%로, 지난 104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 높은 관세 시행이 이뤄질 경우 Budget Lab에 따르면 내년에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가격은 0.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Chicago Wants to Build the Silicon Valley of Quantum Computing 시카고, 쿼텀 컴퓨팅 실리콘 밸리 계획한다

- 시카고시는 한때 US Steel의 옛 South Works 부지 128에이커에 쿼텀 컴퓨팅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 밸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일변 일리노이즈 쿼텀(양자)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파크가 세워지게 된다.
- 이 같은 방안이 성공할 경우 기술 혁신의 물결을 타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WSJ 기사

WSJ: Global Test Scores Show U.S. Students Still Struggling After Pandemic**미국 학생 글로벌 수학 성적 뒤처져... 타국보다 팬데믹 여파 커**

- 미국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팬데믹 여파를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의 지난 2023년과 2019년 글로벌 수학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 보니 다른 나라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 TIMSS 라고 불리는 4학년과 8학년 대상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은 미국과 다른 나라 학생들이 공동으로 치루는 시험이다.

WSJ 기사

[에너지]**WSJ: Oil Prices Steady; OPEC+ Meeting in Focus****유가 상승, OPEC+ 회의에 주목한다**

- 유가가 유럽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의 새로운 이란 석유 수출 제재와 OPEC+가 증산을 연기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 브렌트유는 0.2% 상승한 배럴당 73.79달러를 기록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1% 상승한 배럴당 70.04달러를 기록했다.
-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핵무기 제재를 위해 불법 이란산 석유 운송에 사용되는 35개 기관과 선박을 제재했다. 트레이더들은 OPEC+가 증산 계획을 연기할지 주목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증산 연기가 글로벌 석유 과잉 상황을 되돌리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Oil Seen Below \$60 by Middle of New Trump Term, Survey Shows**새 트럼프 정부 임기 중반까지 유가 60달러 이하로 하락 예상**

- 로펌 Haynes Boon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새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반까지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027년까지 배럴당 58.62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트럼프 당선인은 셰일 가스 생산 증가를 공약했었다. 미국 원유 가격은 글로벌 과잉 생산 우려로 올해 들어 약 2.4% 하락했다.
- Enverus Intelligence Research의 Alex Ljubojevic은 유가가 더 하락하면 생산업체들이 예산을 삭감해 시추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주택]

FinanceYahoo: US mortgage rates decline to 6.69%, lowest since mid-October

미 모기지율, 10월 중순 이후 최저치

- 미 모기지율이 10월 중순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오늘 수요일 발표된 모기지 은행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30년 만기 모기지율은 1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6.69%를 기록했다.
- 연준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에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모기지율도 따라서 떨어졌다. 이번 12월 회의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 모기지율이 떨어지면서 주택 구입 신청 지수는 5.6% 상승해 연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 2주 동안 약 18% 상승했다.

FinanceYahoo 기사

[글로벌 경제]

WSJ: World Economy to Accelerate in 2025, But Recovery Threatened by Higher Tariffs, OECD Says

OECD “2025년 세계 경제 성장 가속... 관세 여파 우려”

- 오늘 수요일, OECD는 2025년 인플레이가 낮아지고 세계 경제 성장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세가 올라가고 광범위한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오히려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OECD는 내년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기존 1.6%에서 2.4%로 상향 조정했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 Alvaro Pereira는 “경제 성장이 탄력적이고, 미국의 성장은 매우 견고하다.”라고 말했다.
-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높은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이러한 예측이 틀릴 수 있다. Pereira는 관세 인상, 무역 긴장, 보호무역주의는 경제 성장 전망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 또한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 급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재정 적자도 경제 성장의 위협이 되고 있다.

WSJ 기사

WSJ: China Services Activity Gauge Signals Continued Growth, Optimism**중국 서비스 활동 지표, 낙관적인 성장 신호**

- 중국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11월 Caixin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51.5를 기록했다. 지수가 50을 넘으면 시장이 확장된다는 뜻이다. 또한 Caixin은 11월 서비스 부문 고용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인상을 공약하면서 중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중국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Caixin Insight Grou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Wang Zhe는 경제에 압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정책적 완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1월 제조업 부문에서도 Caixin 구매관리자 지수가 강세를 보였다. Capital Economics는 중국 경제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부양책의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으며, 해외 보호무역주의와 중국 내 구조적 문제가 향후 몇 년 동안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Korean Battery Makers Have Bright Future Despite Trump****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래가 밝다**

- 트럼프 당선인이 IRA 폐지를 공약했지만,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래는 여전히 밝아 보인다.
- 우선 IRA를 전면 폐지하기가 어렵다. IRA에 따른 투자 대부분이 공화당 지지 주와 경합주에 몰려 있다.
-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협력해 인디애나주 공장에 32억 달러를 투자했다. LG와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시설에 76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관세 인상 정책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중국 경쟁자들을 제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미국 배터리 수요가 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생산 증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배터리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용량이 연간 42%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유럽에선 여전히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LG, 삼성, SK On 한국 3사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WSJ 기사

WSJ: General Motors Takes \$5 Billion Hit From Ailing China Business GM, 중국 사업 부진으로 50억불 손실

- GM이 중국 사업 부진으로 4분기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GM은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올해 첫 9개월 동안 중국 시장에서 적자를 봤다.
- 중국 소비자들이 중국산 자동차에 몰리면서 폭스바겐, 도요타, 테슬라 등 대부분의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 GM CEO Mary Barra는 지난 10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은 지난 7월 사업 구조 조정 계획을 공개하고 중국 내 리더십을 개편했었다.
- GM은 이미 유럽, 인도, 호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철수했었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중국에서도 철수할 경우 GM의 글로벌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

WSJ 기사

CNNBusiness: Coca-Cola is dramatically scaling back its plastic promises 코카콜라, 플라스틱 줄이겠다 약속 못 지킨다

- 코카콜라가 포장재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축소했다. 2035년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 사용을 35%에서 50%까지 늘린다는 기존 목표를 40%로 낮췄다.
-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출시되는 코카콜라 플라스틱병을 모두 재활용한다는 약속도 매년 시장에 출시되는 병과 캔의 70~75%를 수거하는 정도로 목표를 낮췄다. 이 같은 발표에 환경단체 Oceana는 코카콜라를 비난했다.
- 코카콜라 지속가능성 및 전략적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 Bea Perez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탄력성과 자발적 환경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원 배분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보고서]

**미국 경제 '나홀로' 잘 나가는 이유... "실패에 관대 문화도"
FT "지속적 생산성 향상·위험 감수 정신이 경제 원동력"
"미국 독주,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세계 선진국 중에서 수년째 미국 경제만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왜 미국 경제만 경쟁국들보다 잘 나갈까'라는 분석 기사에서 미국 경제의 원동력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실패에 관대한 문화를 꼽았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에 다시 집권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독주하는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9년 말 이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1.4% 성장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